



정교회주보

제2560호

2026년 1월 18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스가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왼쪽에는 사울이 있다.

루가 제 12 주일

성 아타나시오스와 성 끼릴로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제7조 • 조과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주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 사도경 : 히브리 13,7~16 ... (봉)491
- 복음경 : 루가 17,12~19 13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박해자 사울

예루살렘 유학 시절, 사울은 당대 최고의 스승 가블리엘에게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런 그에게 '나자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유다교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온한 집단처럼 보였다. 그의 열정은 빛나간 확신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서게 했다.

성서가 전하는 사울의 첫 모습은 충격적이다. 첫 순교자 스테파노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사도행전 7,58) 사울은 그 죽음을 당연히 여기며, 곧 맹렬한 기세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사도행전 8,3 참조)

훗날 바울로는 이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 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갈라디아 1,13)라고 고백한다. 또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고린토 전 15,9 참조)이라고 낮추어 부른다.

사울의 박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다고 믿은 뒤틀린 열심이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열심마저 새롭게 하여 복음의 도구로 바꿀 계획을 세우셨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사울은 하느님의 섭리로 빛을 향해 나아갈 결정적인 문턱에서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태초에 탐욕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된 인간은 욕심이 잉태되어 영적, 육적으로 더욱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쾌락주의에 빠져 살며,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속적인 믿음에 몰들어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성령을 모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힘과 권력을 앞세워 자신들과 맞지 않는 세력을 위협하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테러와 질병, 전쟁과 기아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양심은 점차 메말라가고 물질로 인한 빈부 격차 속에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계급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여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은 고립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분위기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마음의 평화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에페소 2,14) 이 말씀은 이천 년 전에 전해졌지만,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귀 기울여야 할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사람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써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헛된 것들 속에서 평화를 찾아보아야 그런 곳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평화의 하느님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만

이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진리의 하느님을 “평화의 왕”(이사야 9,6)이라 불렀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또한 평화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에제키엘 37,26) 성 대 바실리오스 성인은 평화를 “모든 축복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 2,14)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평화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요한 14,27) 또한 부활하신 뒤에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넬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요한 20,19)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평화를 얻기 위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메시지로 선포되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 집니다. 주님의 설교 역시 회개로 시작하여 회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개하여라.”(마태오 4,17)라고 외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 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하여라.”(루가 24,47)라는 마지막 분부를 사도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의 축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죄의 고통 속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세례의 길, 곧 끊임없는 죄 사함의 길로 인도

(3면으로)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골로사이 3,11)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407년 안식)은 한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이며, 나는 형제이고, 나는 신랑이다. 나는 너희가 사는 집이고, 나는 음식이고, 나는 의복이다. 나는 뿌리이며, 나는 토대이고,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이다. 설령 네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심지어 종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이며, 나는 동료이고, 나는 머리가

다. 나는 자매이며 형제이고, 나는 어머니이다. 나는 모든 것이니, 오직 나에게만 가까이 매달려 붙잡도록 하여라.

나는 너를 위해 가난해졌고, 나는 너를 위해 나그네가 되었으며,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고, 나는 너를 위해 무덤에 누웠다.

무엇보다도 특히 나는 너를 위해 성부께 간구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는 너를 위해 성부 하느님의 대사(大使)가 되었다. 그리고 너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다. 곧, 형제자매이며 공동 상속자요, 친구이며 동료이다. 이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나이다!

(2면에서 계속)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교회에서는 성찬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식의 연도에서 먼저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며 온 인류가 화합하게 하소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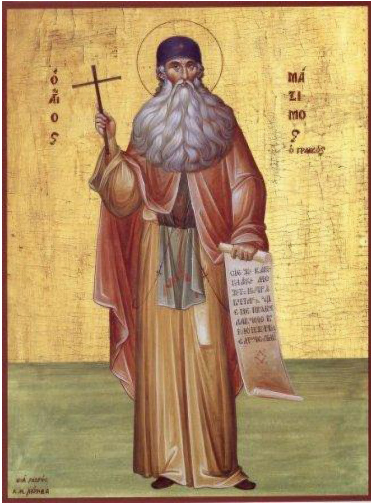
에 신자들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회개의 자세로 응답하며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화는 성령의 은총으로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용서하며, 분쟁 없는 세상을 이루는 데 앞장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퍼질 때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월 21일(수)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도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도자)



알림

■ 대교구 의회 공고

1월 18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22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1부에는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부에는 의안 결의와 발언권을 가진 의회 의원들만 참석합니다.

참석하시는 일반 신자들께서는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구 겨울 수련회 안내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교구 겨울 수련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수련회가 무사히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초, 중, 고등학생 : 1/19(월)-23(금) (참가비 12만원)
- 신데즈모스(예비신자 포함) : 1/23(금)-25(일) (참가비 6만원)
-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 서울 성당 세례성사, 결혼성사

지난 주일(11일),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한 가족의 세례성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부부의 결혼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거룩한 정교인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세례자: 김 안, 김 다리야, 김 아멜리야(유아)

결혼성사: 김 안, 김 다리야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서울 성당의 김영심 포티니 교우(최은정 이리니 교우의 모친)가 지난 10일(토) 안식하시어,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박인곤 요한 신부 집전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인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온히 안식하시길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영성의 샘터



믿음의 고백자

어느 사부가 말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해 약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면서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는 ‘믿음의 고백자’가 된다.”